터키인들 "믿을 것은 달러, 유로화"

터키인들이 재산을 리라화 대신 달러화와 유로화로 바꿔 예금하고 있다. 터키 경제와 리리화에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터키 은행들이 리라화 예금에 연 21%의 이자를 주고 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금리가 제로(0) 상태가 되면서 달러화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제' 에 따르면 터키 은행들에 예치된 거주자들의 예금 중 달러화와 유로화 등 외화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7%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기업과 개인들은 작년 9월 이후 약 180억 달러의 리라화 예금을 달러화로 환전해 예치했다. 예금에 대한 실질수익률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리라화 가치가 지난해 급락세를 보인 탓이다.

터키 은행들이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도 평균 연 21.1% 이자를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20.35%에 달해 세후 실질이자율은 0%다. 터키의 물가가 급등한 것은 달러화 초강세로 수입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지난해 초 달러당 3.4리라에서 8월엔 7리라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인상하면서 리라화 가치 폭락은 막았지만 연 25.2%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인플레이션은 피하지 못했다. 터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을 선포한 뒤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국영기업을 동원해 생필품 소매 가격을 통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제 무기 도입과 시리아 내전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터키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티모시 애쉬 블루베이 자산관리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데다 정부의 가격 통제 같은 반(反)시장 조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봉쇄 원조물품 반입 차단 위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지원한 인도주의 원조 물품의 반입을 막으려고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섬나라들과의 해상·영공을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원조물품을 싣고 콜롬비아 국경에 도착한 美수송기

2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전날 국영 VTV를 통해 "미국과 야권이 추진하는 인도주의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서부 팔콘주와 카리브해 원조 물품 저장지인 네덜란드령 쿠라사우·아루바·보네르 등 3개 섬과 통하는 해상과 상공의 국경 봉쇄가 유지되고 있다." 며 "해상 국경 폐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한 원조 물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입 차단으로 지난 7일 이후 베네수엘라와 국경이 접한 콜롬비아 쿠쿠타와 브라질 북부, 카리브해의 네덜란드령 쿠라사우 섬 등의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다.

지난달 임시대통령 선언을 한 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도주의 원조 물품 반입을 두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대립해온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구호 물품이 육로와 해상을 통해 반입될 것이라며 마두로 정권과 정면 대결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이도 의장을 비롯한 야권은 많은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 기초 생필품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만큼 외국의 원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야권은 표면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원조를 통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군부 이탈을 내심 바라고 있다.

반면 마두로 정권은 인도주의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콜롬비아와의 국경 다리에 화물 컨테이너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구호 물품 반입을 막고 있다.

푸틴, "미국 INF 조약 파기 시 '러 미사일 미국 겨냥'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 (INF)을 파기하고 유럽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이에 대해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응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유럽 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의 군사 지휘 본부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21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추진과 관련한 러시아의 대응조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될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칭적이고 대등한 행동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러시아는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 시스템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센터(지휘부)가 위치한 지역을 향해 사용할 무기를 개발하고 전개할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유사시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이 발사될 유럽 지역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군사 지휘본부도 대응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은 "일부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날아오는 시간은 10~12분에 불과하다." 면서 "이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 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000㎞ 단거리와 1000~5500㎞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뒤이어 올 2월 초 러시아가 정해진 시한까지 조약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약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공표했고,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